

권윤경

“권리는 보편적이고 모든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연권을 가진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등 18세기 후반 유럽의 계몽주의와 혁명의 시대의 권리 개념을 다룰 때 우리는 보통 유럽과 미국의 사상가나 혁명가들을 떠올린다. 하지만 교육받지 못한 농민, 수공업자, 일용 노동자, 여성들 역시 전통적인 저항의 방식과 새로운 권리 담론을 결합하여 새롭게 사회적 투쟁에 참여했다.

주요 논의 내용

- 권리 개념의 보편성과 그 한계
- 대서양 노예제 경제의 형성과 노예들의 저항
- 아이티 혁명을 통해 본 빼앗긴 자들의 권리 투쟁

혁명의 시대에 권리 개념의 보편성과 그 한계, 그리고 이를 이용해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는 투쟁이 가장 극적으로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니라 대서양 건너편에 있던 아메리카의 식민지였다. 이 강의에서 주목하려는 것은 오랫동안 세계 혁명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티 혁명이다. 계몽 시대의 아이러니는 파리의 철학자들이 카페에서 자연권을 논하며 마시던 커피와 설탕이 인권 일체를 부정당하고 재산으로 취급되던 아프리카 노예들의 피땀으로 재배되었다는 사실이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실어와 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부리는 대서양 노예제는 18세기 후반 번영의 절정에 달했다. 노예는 아메리카 경제의 모든 부문에 투입되었지만,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은 대규모 노예 노동력을 투입하여 대농장에서 상품 작물을 대규모로 생산한 후 유럽에 파는 것이었다. 덕분에 원래 사치품이었던 설탕은 18세기 후반이면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는 일상적인 식품이 되었다.

특히 카리브해의 섬들은 ‘설탕섬’으로 불릴 정도로 설탕 생산에 특화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부유한 섬이 바로 아이티혁명의 무대인 프랑스령 생도맹그(Saint-Domingue)였다. 생도맹그가 위치한 히스파니올라섬은 원래 에스파냐령 산토 도밍고(Santo-Domingo)였는데, 나중에 프랑스가 섬의 서쪽 3분의 1을 양도받아 프랑스 영토가 되었다. 오늘날에도 동쪽은 스페인어권인 도미니카 공화국, 서쪽은 과거 생도맹그였던 아이티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불리는 이 섬은 당시에는 대서양 경제의 핵심부였다. 이 섬은 유럽 설탕과 커피 소비량의 거의 절반을 생산했고, 생도맹그와의 무역은 프랑스 해외 무역량의 40%를 차지했다. 그러나 1770-1780년대에 설탕 가격이 계속 오르자 호황에 취한 생도맹그 농장주들이 흑인 노예 수입을 계속 늘리면서 섬은 극단적인 인구 불균형 상태에 빠졌다.

본국에서 프랑스혁명이 일어나자 위태로운 균형 위에서 있던 생도맹그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섬을 지배하던 백인 농장주 계급은 혁명과 반혁명파로 분열했고,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던 자유민 유색인 부르주아도 프랑스의 혁명 의회에서 로비 활동을 펼치며 백인들과 같은 시민권을 요구했다.

그 결과 섬은 주인계급 사이의 내전 상태로 빠져들었고, 이들 사이의 분열은 인구 대다수를 차지한 노예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1791년 8월 22일, 설탕 대농장이 집중되어 있던 생도맹그 북부에서 대규모 노예 반란이 벌어져 대농장이 불타고 백인들이 학살당했다. 노예 반란은 급속도로 섬 전체로 퍼져 나갔고, 여기저기서 무장한 흑인 노예들로 이루어진 반란군이 나타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거리 때문에 몇 달 후에 소식을 접한 혁명의회는 혼란에 빠졌다. 재산 자격을 충족하는 자유민 유색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던 의회는 그동안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던 흑인 노예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권윤경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친 후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역사학부 서양사전공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근대 프랑스사 전공으로 주로 프랑스 식민주의, 대서양 노예제와 노예제폐지운동, 프랑스혁명과 아이티혁명, 근대 인종주의, 기억의 정치, 탈식민주의 등을 연구한다. 공저로 『France’s Lost Empires』 (2010), 『Abolitionist Places』 (2013), 『전쟁과 프랑스 사회의 변동』 (2017), 『정치사상사 속 제국』 (2018), 『세계 디지털 인문학의 현황과 전망』 (2019), 『19세기 히스토리』 (2022), 『프랑스를 만든 나날, 역사와 기억 1』 (2023) 등과 번역서로 『모두의 바람』 (2022)이 있다.

서구인들은 흑인 노예들의 반란이 프랑스혁명의 인권 사상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는 서구중심적인 편견에 불과하다. 최근 진행된 많은 연구는 노예들이 수 세기에 걸친 노예제에 대한 가열찬 저항의 전통 위에서, 그리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 3개 대륙에서 발원한 실로 다양한 자유와 권리의 레퍼토리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해방을 요구했음을 밝혀내고 있다.

특히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흑인 공론장(black public sphere)”이 구술문화를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의 노예와 유색인 사이에서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혁명 전부터 신세계에서는 대서양 무역과 아메리카 내의 무역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바닷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뉴스를 퍼 날랐다. 제국의 경계들을 넘나드는 상인, 선원, 도망 노예들은 유럽과 다른 식민지의 뉴스를 빠른 속도로 전파했다. 노예들은 대부분 문맹이었지만 혁명의 시대에 유행한 작은 팸플릿들은 글을 아는 이들에 의해 구술의 장으로 널리 퍼져갔다.

1793년 무렵 생도맹그의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프랑스 본국에서는 혁명이 점차 급진화되어 1792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선포하는 한편 유럽의 왕조 국가들과 혁명전쟁에 돌입했다. 혁명전쟁은 곧 식민지로 확대되었다. 여기서 공화국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당시 프랑스 혁명정부는 송토나(Léger-Félicité Sonthonax)를 비롯한 몇 명의 관무관을 정부의 대리인으로 섬에 파견했다. 이들은 혁명에 끌어들이 수 있는 유일한 대규모 무장세력, 즉 흑인 노예의 충성을 확보하여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 송토나는 이를 위해 1793년 8월 선제적으로 생도맹그에 전면적인 노예해방령을 선포했다.

그 사이 생도맹그에서는 “흑인 스파르타쿠스”라고 불리게 될 해방 노예들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아프리카인 노예 사이에서 태어난 해방 노예였던 투생(Toussaint)은 노예해방에 반대하는 강력한 적들, 즉 영국군, 에스파냐군, 프랑스의 백인 반혁명파, 그리고 그와 경쟁하는 자유민 유색인 세력을 차례로 물리치고 섬의 실질적 지배자로 부상했다.

투생은 프랑스 본국과도 싸워야 했다. 1799년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사실상 혁명이 종말을 맞았다. 나폴레옹은 본국에 열대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 식민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다. 이에 경계심을 가진 투생은 1801년 노예해방이 결코 반복할 수 없는 인민의 권리라는 내용의 생도맹그 헌법을 선포했다. 이를 독립 선언으로 간주한 나폴레옹이 생도맹그에 대규모 원정군을 보내면서 아이티혁명의 가장 참혹한 국면인 아이티 독립전쟁이 시작되었다.

나폴레옹군의 도맹그 원정군 사령관 르클레르(Charles Leclerc) 장군은 초반에 투생 군대 내의 분열을 이용해 투생의 항복을 받아냈고, 투생은 프랑스의 감옥에서 1803년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한 번 자유를 경험한 이들에게 이제 혁명은 문자 그대로 “자유 아니면 죽음”의 문제가 되었고, 생도맹그의 전 인민이 결사 항전에 나섰다. 결국 1804년 생도맹그는 독립했고, 새로운 군사 지도자 데살린(Jean-Jacques Dessalines)은 식민 모국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는 의미에서 국명을 원래 선주민들이 부르던 섬 이름을 따라 아이티(Haïti)로 바꾸었다. 프랑스의 다른 식민지에서는 노예제가 복구되었지만, 아이티에서는 아메리카 최초로 반식민주의, 반인종주의, 노예해방을 선언한 흑인 독립국이 탄생했다.

일시
2024년 6월 17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20세기 말부터 프랑스혁명을 ‘인권혁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으나 혁명기 자유와 권리는 결코 그렇게 매끄러운 서사로 정리될 수 없고, 권리는 결코 보편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노예제를 폐지하고 해방을 수호함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진정으로 구현한 것은 흑인 노예들의 창과 피였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서 노예제의 기억이 치열하게 부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현재 글로벌 자본주의의 참혹한 노동 현실과 인종화된 노동 체제를 새롭게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이다.